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 민간 고용 성장세 올해 들어 가장 낮아
- WSJ: 미국인들 예전보다 투자 수입 늘어

[미국 금융]

- Bloomberg: 국채 수익률 2개월래 최저 수준... 미 고용 약세 ADP 발표 등
- Bloomberg: 나스닥 100지수 1% 상승 중...기술주 주도로

[뉴욕시]

- Bloomberg: 뉴욕주지사, 맨해튼 통해 혼잡세 연기 가능성 검토
- Bloomberg: 뉴욕시 일자리 늘었다. 홈 헬스케어 근로자 증가 덕분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신청 건수 4월 이후 가장 떨어져

[원유]

- CNBC: 오일 가격 상승 불구, 4개월 내 최저 근접...OPEC+ 결정에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BC: 달러 트리, 브랜드 '패밀리 달러' 브랜드 매각 검토
- Bloomberg: 아마존, 드론 배송 확장 위한 FAA 승인 획득
- CNBC: FAA, 아처 예비에이션에 핵심 허가 부여
- Reuters: 월마트, 미국 내 시간제 매장 직원에게 보너스 지급한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Hiring Slows to Weakest Pace Since Start of Year in ADP Data

미 민간 고용 성장세 올해 들어 가장 낮아

- 제조업 일자리가 급속히 감소하는 가운데 5월 기업들의 고용 증가세가 올해 들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시장이 둔화되는 상황이라는 것.
- ADP 리서치 연구소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민간 일자리가 5월에 15만2천개 증가했다. 이는 블룸버그 전문가 예상치 17만5천개보다 낮았다.
- 이 연구소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Nela REchardson 은 “올해 하반기 들어서 일자리 증가와 임금 상승이 둔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조하지만 기업과 소비자와 연관된 약세 현상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구체적으로 제조업이 7월 이후 가장 큰 2만명이 줄었고,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회사들도 작년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

Bloomberg 기사

WSJ: Americans Have More Investment Income Than Ever Before **미국인들 예전보다 투자 수입 늘어**

-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인들이 집값 상승과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수입으로 계절 조정 연이율로 4년 전보다 7천7백억달러 늘어난 3조 7천억달러를 벌었다.
- 전반적인 계층에서 최근 수년간 임금과 부의 증가가 있었지만 순전히 달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백인, 부유층, 대학 교육자, 베이비 부머 등이 주택(낮은 모기지율에 묶여 있어) 등의 자산 소유를 통해 훨씬 부를 더 늘렸다는 것이다.

WSJ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ond Yields Hold Near Two-Month Low After Weak ADP Jobs Report

국채 수익률 2개월래 최저 수준 ... 미 일자리 약세 ADP 발표 등

- 오늘 일자리 보고서와 서비스 부분 지수가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엇갈린 발표가 난 후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4월 초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주 금요일 연방정부의 일자리 발표가 있게 된다.
- 현재 국채 금리는 거의 변동이 없는 상태인데 2년물은 4.76%, 10년물은 4.33%로 지난 2개월간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오늘 수요일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엇갈린 내용들이다. ADP 리서치 연구소에 따르면 미 일자리 고용 증가세가 약화되었으나 ISM 설문 조사 결과는 5월에 미 서비스 활동이 9개월 만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asdaq 100 Climbs 1% as Tech Powers Stock Gains: Markets Wrap

나스닥 100지수 1% 상승 중... 기술주 주도로

- 최근 경제 지표들이 연준의 향후 금리 조치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트레이더들이 주목하는 가운데 미국의 기술 주도 대형 기업들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 달리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로 약세를 보였다)
- 기술 주도의 나스닥 100은 엔비디아 상승 주도로 1% 증가했다. 주식시장은 상승하고 있다. S&P 500이 4일 연속 상승 중이고 10년 국채 금리는 4.32%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미 서비스 부문이 지난 2021년 월간 기준으로 비즈니스 활동 지표가 가장 크게 상승한 데 힘 입어 9개월 만에 가장 크게 확장된 이후에 상승 중이다. 오늘 수요일에는 미 민간 기업들의 고용 상승세가 올해 들어 가장 둔화되고 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 공식적인 정부의 고용 관련 일자리 보고서는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금요일 월간 발표에서 실업률은 변동 없고 일자리는 18만5천개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뉴욕시]

Bloomberg: NYC Congestion Pricing Risks Delay After Hochul Weighs Pause

뉴욕주지사, 맨해튼 통행세 연기 가능성 검토

- 뉴욕주 Kathy Hochul 주지사는 맨해튼 미드 타운 집입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연기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뉴욕시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행세가 예정대로 6월 30일 시행되면 운전자 대부분은 15불씩 내 연간 10억달러의 총수입으로 1백년된 뉴욕시 교통 시스템을 개보수 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 뉴욕주지사가 재검토 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올해 뉴욕주 하원 선거에서 통행세 시행이 민주당에 불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현재 시행 여부를 두고 재판 중인 통행세 관련 법원은 예정대로 시행 또는 연기 또는 환경 영향 재검토를 위해 연방하이웨이부처로 다시 돌려보내는 방안을 판결할 예정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NYC's Job Boom Is Fueled by Taxpayer-Funded \$38,280 Health Gig

뉴욕시 일자리 늘었다. 홈 헬스케어 근로자 증가 덕분

- 뉴욕시는 지난 팬데믹에 사라진 일자리 3만개를 다시 찾았다. 지난 1년간 이같은 뉴욕시 긍정적인 일자리 회복은 다른 도시에 비해 컸다.
- 그런데 사실상 올해 3월까지 1년간 뉴욕시 일자리 증가는 주로 저임금 홈 헬스케어 근로자들의 증가에 힘입었다. 이들의 평균 연봉은 3만8천2백80불로 주로 메디케이드와 같은 공공 자원 지원 프로그램으로 임금이 지원된다.
- 그러나 4월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만약 이들 업종의 증가가 없었다면 뉴욕시 전체 민간 일자리 숫자는 작년에 줄었을 것이라는 것.
- 다른 민간 업종에서 올해 3월까지 1만4천1백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특히 제조, 건축,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 분야 등 고소득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

Bloomberg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me-Purchase Applications Fall by Most Since Early April

미 주택 신청 건수 4월 이후 가장 떨어져

- 모기지 금리가 7%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지난주 미국의 주택 모기지 신청 건수가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5월 31일로 끝난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는 4.4% 하락했다.
-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2베이시스 포인트 상승한 7.07%로, 9주 연속 7% 이상을 기록 중이다. 반면, 5년 변동 모기지 금리는 27베이시스 포인트 하락하여 2개월 만에 최저치인 6.37%로 떨어졌다.
- 주택 구입과 재융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신청 지수는 지난주 5.2% 하락한 180.4로 2월 23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 주택 매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적인 주택 구매자들은 여전히 높은 주택 가격과 대출 비용으로 인해 망설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원유]

CNBC: Oil prices rise but hover near four-month low on OPEC+ supply increase later this year

오일 가격 상승 불구, 4개월 내 최저 근접... OPEC+ 결정에

- 수요일 원유 선물은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4개월 내 최저치 근처에 있다. 이는 올해 말에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OPEC+의 결정이 시장에 부담을 주었기 때문이다.
- 이번 주 미국산 원유와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는 일요일 8개 OPEC+ 회원국이 2백20만 배럴의 감산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4% 이상 하락했다.
- 브렌트유는 77.93센트, 서부 텍사스 중질유(WTI)는 73.64센트 부근에서 거래중이다.

CNBC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Dollar Tree is exploring a sale of its Family Dollar brand

달러 트리, 브랜드 '패밀리 달러' 브랜드 매각 검토

- 달러 트리는 수요일 식료품 중심의 '패밀리 달러' 브랜드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 회사는 최근 사업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약 1천개의 패밀리 달러 매장을 폐쇄할 계획을 공개했으며, 회계연도 1분기 동안 5백개 이상의 매장을 이미 폐쇄했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에서 달러 트리는 "패밀리 달러의 간소화 전략을 통해 목표 전략 달성에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패밀리 달러의 혁신과 달러 트리의 성장 가속화로 패밀리 달러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적 대안을 철저히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CNBC 기사

Bloomberg: Amazon Drone Delivery Plans Move a Small Step Forward

아마존, 드론 배송 확장 위한 FAA 승인 획득

- 아마존은 최근 드론 배송 서비스 확장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4월 초, 아마존은 오리건주 펜들턴의 공항에서 드론 모의 배송 작업을 진행했다. 이 시험은 드론의 자동 회피 소프트웨어(automated avoidance software)가 혼잡한 공역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연방항공청(FAA)의 검사관들이 이를 지켜보았다.

- 아마존의 규제 담당 책임자 Matt McCardle은 드론이 테스트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마존이 대규모 물류 네트워크에 드론을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 아마존은 가시거리 밖 비행 승인을 받은 소수의 상업용 드론 운영업체와 함께 FAA의 파트 135(Part135) 승인을 받아 비행하고 있다. 앞으로 아마존은 이전 모델보다 두 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MK30 드론 설계에 대해 FAA의 승인을 구할 계획이다.

Bloomberg 기사

CNBC: Electric air taxi maker Archer Aviation gets key FAA sign-off FAA, 아처 에비에이션에 핵심 허가 부여

- 수요일, 연방항공청(FAA)는 항공 택시 제조업체 아처 에비에이션에 핵심 인증을 부여했다고 발표했다. 아처 에비에이션은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를 만들고 있으며, 2021년에 유나이티드 항공사로부터 주문과 지원을 받은 바 있다.
- 항공사들은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하고 혼잡한 지역에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는 Evtol 항공기에 투자하고 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이 항공기를 승객들이 맨해튼과 뉴저지 뉴어크 공항을 오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아처 에비에이션의 CEO Adam Goldstein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파트 135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승객을 실어나를 수 있는 항공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Reuters: Walmart to pay US hourly store workers bonuses for first time ever

월마트, 미국 내 시간제 매장 직원에게 보너스 지급한다

- 수요일, 월마트가 미국 내 시간제 매장 직원에게 사상 처음으로 보너스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70만명의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조치이다.
- 시간제와 정규직 직원 모두가 연간 보너스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아이디어는 매장 직원들의 피드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월마트 CEO John Furner가 밝혔다.
- Furner는 회사 연례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본 임금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너스를 받으려면 1년 동안 회사에 근무해야 하며, 이는 특정 성과 목표를 달성한 매장을 기준으로 계산된다고 덧붙였다.

Reuters 기사

"미 노동시장 냉각에 금리인하 기대 고조...침체 우려도 확산"

"채권금리 일제히 하락...주식시장은 소폭 상승 그쳐"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가 채권시장 랠리(=금리 하락)가 지속됐다.

하지만 경제가 '골디락스'(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상태) 수준을 넘어 침체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와 주식시장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

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천건으로 전월 대비 29만6천건 줄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